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김 인 혜

오늘날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제도와 가치관의 변화는 인생 황혼기에 접해 있는 노인에게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심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한다. 노년기는 사회제도 자체 뿐 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참여의 폭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비참여의 시기이며 모든 기능이 감퇴, 퇴보, 파괴되는 시기로 사회활동이 제한된 노인은 가정에서 마저 고립되어 소외감이나 고독을 느끼게 된다.

고독감은 인간의 사회적 대인관계 조직이 질적, 양적으로 불충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유쾌한 경험으로서 노인의 고독감은 자타에 관련된 여러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고독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현상을 알아보고 노인들의 보다 질적인 삶을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 6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994년 1월 부터 9월 까지 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자원 봉사자의 일원으로 대상자와 접근하여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연구의 의도를 밝히고 동의를 구하였다. 가능한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말로서 표현한 고독경험과 연구자의 관찰내용이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Parse, 1985)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이야기와 연구자의 관찰내용을 기술단위로 하여 대상자의 언어로서 표현된 고독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를 찾아내고(밑줄로 표시), 그것들을 통해 파악된 중심의미를 연구자의 말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이런 중심 의미를 통합하여 각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고독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고독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어 고독경험현상의 구조와 의식의 흐름을 체계화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고독의 유발요인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및 신체상의 문제>, <과거 삶의 반추>, <무료함>의 5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형성된 고독감은 통상 '쓸쓸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괴롭다'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며 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따위의 행위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히 질병의 경우 평소의 고독감을 더욱 가증시키는 촉진요인으로 보았고, '종교적 믿음' 또는 '술 마시는 행위' 등 기존(또는 신규)의 적극적(또는 소극적) 대처 방안을 고독감의 완화요인으로 보았다.

* 1995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독은 대상자별 삶의 경험과 이해방향에 따라 운명론에 입각할 경우 대체로 특별한 고독의 대책을 마련치 못하여 현실적 고독이 계속 방치되는 순환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체념론의 경우 특히 질병과 같은 고통스런 상황과 병합될 때 비교적 급속하게 죽음의 인식에 가까워 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대처론에 입각할 경우 종교에의 몰입, 음주, 마음껏 울어버림 등의 해소책을 통해 고독감을 완화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독은 완전히 해소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죽음으로써 종결되기 전에는 어떤 경로든 영원한 순환체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중심으로 한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적 측면 : 고독에 대한 노인의 경험을 특성이 다른 개인별 관점에서 기술, 확인 함으로써 노인의 고독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고독에 대한 노인간호이론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연구 측면 : 간호가 대상자에게 실질적 만족감을 주는 질적간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자의 주관적 의식을 존중하여야 하나, 종래 연구의 이론에 입각한 간호는 대상자의 개성적 특성을 간과하고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식의 보편성에 치중한 바 진정한 의미에서 대상자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삶의 과정중에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감정을 수집하고 분류,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합당한 신념 및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대상자 관점(emic view)의 연구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각 개인별 의식특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노인의 고독감이 개인적 환경, 사상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감안한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교육적 측면 :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 노인성질환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으나 개성있는 주체로서 고독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육체적 건강 못지 않게 삶의 질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심리간호교육의 도입 및 보수교육이 요구됨을 확인함으로써 간호교육 교과과정의 재편성을 위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간호실무적 측면 : 개개인의 삶의 질은 육체적 건강이외에 특히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인된 우울, 고독과 같은 정신적 상태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환경적 측면에 대한 이해없이 총제적, 인본주의적 간호제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대상자의 삶에 대한 인식에는 우리 민족고유의 독특한 생활문화적 특성이 드러나 있어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간호실무에서 고려하고 반영하므로써 인간에 대한 보다 총제적인 이해에 기초를 둔 질적간호의 제공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산업화, 고령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육체적 노쇠는 물론 심리적 소외까지 간호의 영역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 효과적인 노인간호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더우기 이러한 대상자(노인)의 개성적 특성을 간호에서 고려하고 반영하므로써 인간에 대한 보다 전인적 총체적인 이해에 기초를 둔 질적, 인본주의적 간호제공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대상부문에 있어서 인구의 고령화 및 간호의 사회적 영역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본 연구 및 이

와 관련된 부문의 연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방법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우세한 우리 문화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자기의 경험을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의 정착, 확산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법을 통해 심층면접을 추진함으로써 고독 등과 같은 심리 내면적 부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극빈상태에서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원천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노인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후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